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2013년 10대 글로벌 트렌드

퇴직연금

동향: 2012년 사회조사 결과(요약)
이슈: 서민금융의 올바른 이해
퇴직연금통계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012년 신규 취업자는 43만 7천명 증가

-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43만 7천명을 기록
 - **2012년 연간 고용동향:**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대비 0.2%p, 고용률은 59.4%로 0.3%p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대비 0.2%p 하락한 3.2%를 기록
 - **2012년 12월 고용동향:** 2012년 12월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지만,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가 크게 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월대비 31만 5천명 증가
- 고용지표의 호조에도 12월 청년층 고용률이 39.3%로 2009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떨어진 반면, 60대의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연령별 고용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금융 동향: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강세 뚜렷

- 2013년 들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2013년 1월 기준금리도 동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강세를 나타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월 21일 2.85%에서 2013년 1월 11일 현재 2.76%로 0.09%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새해 들어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12월 21일 1,074.5원에서 2013년 1월 11일 현재 1,056.0원으로 18.5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12월 21일 1,980.4에서 2013년 1월 11일 1,996.7로 16.3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2/4	3/4	4/4	1/4	2/4	3/4	12월21일	1월11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3.4	3.4	3.4	2.8	2.4	1.5	-	-
	산업생산(%)	7.2	5.3	5.3	5.3	4.2	1.5	0.3	2.9	-
	소비자물가(%)	4.2	4.8	4.2	4.8	3.0	2.4	2.4	1.6	1.4
	실업률(%)	3.4	3.1	3.0	3.1	3.8	3.3	3.0	2.8	2.9
	경상수지(억달러)	54.9	69.0	126.7	69.0	25.6	111.4	145.6	68.8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60	3.41	3.60	3.45	3.39	2.88	2.85	2.76
	원/달러(원)	1,083.2	1,085.1	1,143.9	1,085.1	1,131.3	1,152.1	1,132.9	1,074.5	1,056.0
	코스피지수(P)	2,100.7	1,769.6	1,825.7	1,769.6	2,014.0	1,854.0	1,900.5	1,980.4	1,996.7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12월 21일은 11월, 1월 11일은 12월 수치임

□ 경제 이슈: 2013년 10대 글로벌 트렌드

■ 2013년에는 글로벌 거버넌스, 금융·경제, 군사·외교, 에너지·식량·자원, 산업·과학기술, 경영·소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거버넌스(권력구조)

- ① **G-Zero 시대 심화 : 세계 경제 리더십 약화.** 2013년에는 주요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국제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으로 국제 질서의 불안이 심화되는 'G-ZERO'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G-ZERO 시대에는 미·중의 신정부 간 정치·경제적 갈등 심화,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 속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그리고 중동과 동북아시아 등 역내 리스크 고조 등이 특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 글로벌 금융·경제

- ② **글로벌 그레이트 모데레이션(Global Great Moderation) 전환 : 세계 경제의 안정적 저성장 기로의 전환.** 세계 경제는 경제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나,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여 4% 내외의 안정적인 저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③ **글로벌 경제 파워 이동 : 신흥개도국의 세계 경제 성장 주도.** 신흥개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5%대로 세계 전체 GDP 성장률 3.8%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선진국은 1%대로 낮아 신고선저(新高先低)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흥국이 세계 경제 활력의 중심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새로운 신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④ **자원 지도(Map) 확장 : 세계 주요 지역의 자원 분쟁 격화.** 역사적·종교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 중동·서남아시아의 전통적인 지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러시아 쿠릴열도 등이 핵심 분쟁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영토분쟁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자원 확보 경쟁으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군사·외교

- ⑤ **리뉴어블 월드(Renewable World) 본격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에너지 자원 가격의 급등과 지구 환경 문제의 심화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 부상하는 리뉴어블 월드(Renewable World)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진전되면서 2013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투자 및 고용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산업·과학기술

- ⑥ **팍스 로보티카(Pax Robotica) 전개 : 로봇 이용 확산.** 산업 및 일반 사회·가정에서의 로봇 이용이 확산되는 '팍스 로보티카' 시대가 성숙할 전망이다. 기존 산업 부문에서 서비스용 로봇 부문으로 로봇시장이 확장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면서 세계 각국은 로봇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는 다양한 로봇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스마트기기와의 융합이 가능해져 일반인의 로봇 개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 ⑦ **싱터넷(Thingernet) 시장 확대 : 사물인터넷의 보편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싱터넷은 IP 주소의 확보, 통신망의 발전, 데이터 저장 비용의 감소 덕분에 본격적인 발전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 및 생활의 안전성·편의성이 향상되고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⑧ **지구 뉴 프론티어(New Frontier) 부상 : 새로운 개발지역의 부상.** 세계 각국은 자원확보와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목적으로 해양, 극지(북극)와 같은 미개척지 개발뿐 아니라 우주에까지 자원개발 영역을 확대하는 뉴 프론티어(New Frontier)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극지탐사기술, 우주항공기술 등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2013년에는 해양, 북극지역, 우주 개발 경쟁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 글로벌 경영·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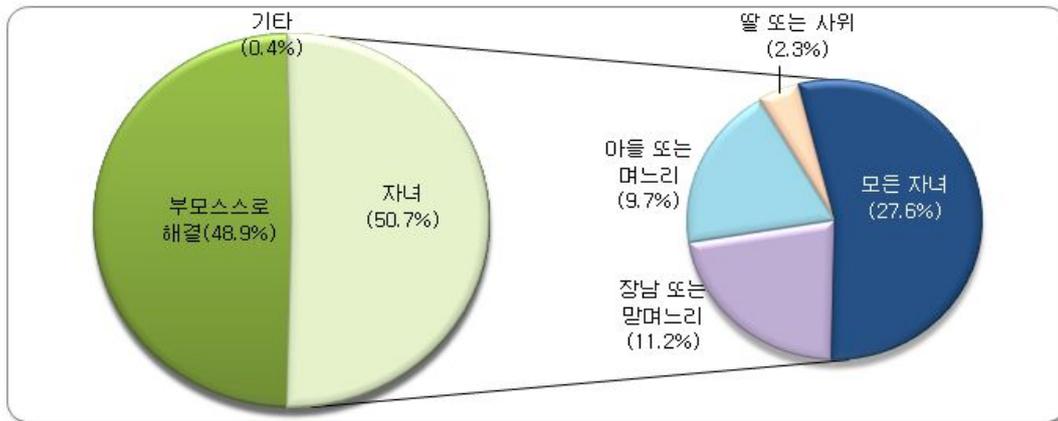
- ⑨ **M&A 전성시대 재현 : 새로운 거대 M&A 시장 형성.** 신성장동력 발굴에 노력 중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2013년 세계 M&A 시장에서 스마트 쇼핑을 펼치면서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 침체로 M&A 시장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기업 인수 기회가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투자 자원 역시 풍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시장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M&A가 활발해지는 한편, 장기경영 전략에 맞는 인수 대상에 대한 선별적·공격적 투자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 ⑩ **세빌 서비스(Servile Service) 유행 : 고객 맞춤 만족서비스 상용 개발 증대.** 세빌(Servile)이란,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하인처럼 고객들의 욕구와 필요 그리고 변덕까지도 맞추는 것으로 2013년 기업들이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고객 실시간 체험과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간과 비용 절약으로 고객의 효용을 극대화하며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까지도 보완하는 준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고객데이터 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수석 연구위원(2072-6306, leebuh@hri.co.kr)

□ 동향: '2012년 사회조사 결과' 中 요약
(12/20 통계청 보도자료 요약)

○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

- 가구주 부모의 생활비는 아들, 딸 등의「자녀」가 제공하는 비율이 50.7%로 줄고,「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48.9%로 증가하는 추세임
- 자녀 중에서는 아들, 딸 구별없이 「모든 자녀」가 함께 생활비를 드린 경우(27.6%)가 가장 많았으며,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

(단위 : %)

	계 ¹⁾	자녀	자녀				부모 스스로 해결	기타
			장남 또는 딸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2008년 ²⁾	100.0	52.9	14.6	10.5	1.9	25.9	46.6	0.5
2010년 ²⁾	100.0	51.6	12.4	11.3	1.8	26.1	48.0	0.3
2012년	100.0	50.7	11.2	9.7	2.3	27.6	48.9	0.4
가구주 연령								
13~29세	100.0	18.5	3.5	3.2	1.7	10.1	81.3	0.2
30~39세	100.0	33.6	6.2	6.3	2.1	19.0	66.2	0.2
40~49세	100.0	57.4	11.0	11.1	1.8	33.5	42.3	0.3
50~59세	100.0	74.4	19.2	14.2	3.3	37.8	25.0	0.6
60세이상	100.0	79.5	25.8	16.0	3.6	34.2	18.7	1.8

주 : 1) 부모 생존 가구주

2)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부모의 노후 생계는「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48.7%로 가장 많고, 다음은「가족(33.2%)」임
 - 부모의 노후를「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2008년 40.7%에서 2012년 33.2%로 감소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
 - 부모 부양 책임자로 '가족' 중에서는「자식 중 능력 있는 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든 자녀」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계	부 모 스스로 해결	가 족	가족과 정부 사회	정 부 사회	기타	가족 중 부모 부양자					
							소계 ¹⁾	장 남 (만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 든 자 녀	자식중 능력 있는자
2008년 ²⁾	100.0	11.9	40.7	43.6	3.8	0.0	100.0	17.3	6.7	0.9	58.6	16.4
2010년 ²⁾	100.0	12.7	36.0	47.4	3.9	0.0	100.0	13.8	7.7	1.8	62.4	14.3
2012년	100.0	13.9	33.2	48.7	4.2	0.0	100.0	7.0	3.9	0.8	74.5	13.9
남 자	100.0	13.5	35.3	47.1	4.0	0.0	100.0	8.2	5.2	0.4	72.1	14.1
여 자	100.0	14.2	31.2	50.2	4.4	0.0	100.0	5.7	2.7	1.2	76.8	13.6
세대구분												
1세대가구	100.0	20.2	32.9	43.0	3.8	0.0	100.0	9.6	4.2	0.5	70.3	15.3
2세대가구	100.0	11.9	32.0	52.1	3.9	0.0	100.0	5.4	3.7	0.9	76.8	13.2
3세대이상	100.0	10.1	37.4	47.7	4.7	0.1	100.0	10.2	4.9	1.0	70.8	13.1

주 : 1) 2012년도는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 이슈 : 서민금융의 올바른 이해

최근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은 거의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이 강조되고 있지만 진작 서민들은 서민금융에 대해 그리 알지 못해 신용공여 서비스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 등 작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서민금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과 서민에 대한 저리 자금의 정책적 금융지원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서민금융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민금융을 소개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이 목적이다.

□ 약화일로로 서민경제와 서민금융의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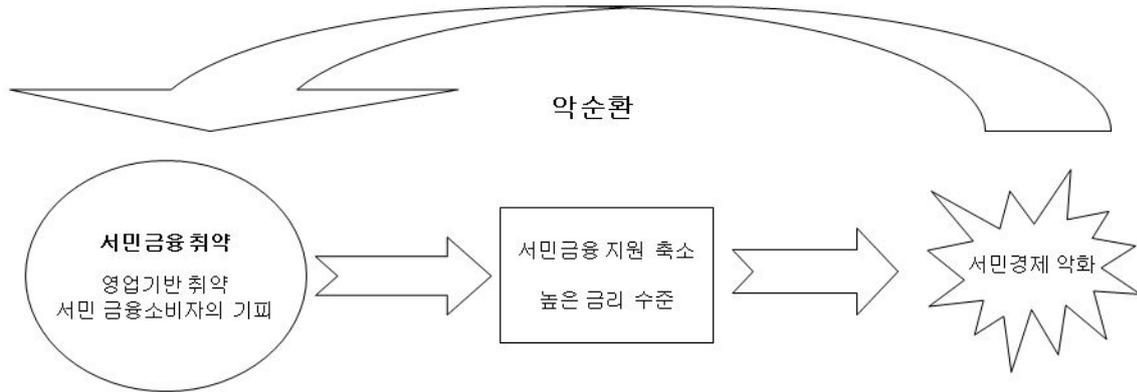
- 서민(庶民)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반국민' 또는 '귀족이나 상류층이 아닌 보통사람'임. 하지만 우리가 통상 서민이라 할 때는 저소득층 서민을 말함
 -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일자리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민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소득 하위 50% 미만에 속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상대적빈곤율'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저소득층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
 - 특히 고령인구의 '상대적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소득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의 경우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런데다 최근 서민들을 위한 경제 여건 또한 밝지 못함.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이 3.7%로 저조한데다가 2012년 이후에도 4% 이하의 전망이 지배적임
 - 더욱이 가파른 물가상승 속에서 서민 가계의 실질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과실 중 서민 가계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금융이 강조되고 있음. 서민금융은 일반적으로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임
 - 다소 추상적인 서민금융의 정의를 통계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신용등급(1~10등급)을 기준으로 저신용층(6~10등급)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일컫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할 수 있다. 신용조사기관(CB: Credit Bureau)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성인의 65~70%가 고신용자(1등급~5등급)이며, 30~35%가 저신용자임
 - 저신용자 중에는 청년 계층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임

- 최근 경기침체,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이들 서민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약 950만 명에 해당하는 저신용자가 평균 1년에 적어도 500만 원의 긴급 금융수요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47.5조원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서민금융의 약화는 서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는 다시 서민금융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할 수 있음
 -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융지원으로 구제될 수 있는 예비 금융연체자를 신용불량의 지위로 전락시키고, 자칫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파산으로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 또한 서민경제활동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 및 영세상공인의 사업기회를 축소시켜 이들의 소득감소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이처럼 서민경제가 장기간 위축될 경우 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이 상실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와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금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 악순환 구조 >



□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회복

-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도권 금융기관에 의해 서민금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후 각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홀로 인하여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악화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대출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로 전통적인 서민금융기관이 이를 담당하였음
 - 과거 전당포, 사채업자, 계(契) 등이 양성화되면서 탄생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을 서민금융기관이라 일컬었음
 - 하지만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이들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먼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표적인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 서민금융지원을 늘리고 있음
 - 2002년 이후 대출금이 크게 늘어났으나, 대부분 주택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대출 금융지원이 매우 악화되었음
 - 금융위기 이후 서민 가계대출이 회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건이 좋아져 높은 대출 이자율이 점차 내려가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이 빠르게 증가될 수 있음
 - 서민금융 기능이 악화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도 좀처럼 서민금융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서민금융을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전통적 서민금융기관 >

상호저축은행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o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에 따른 이른바 사금융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한 상호신용금고가 2002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 o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는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대출, 어음 할인 등의 내국환 업무로 은행과 거의 유사
신용협동기구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 o 조합원들의 예탁금, 적금 등의 자금으로 회원들에게 대출해주는 신용사업 등 o 우리나라의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농협 단위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 등)

- 은행의 경우도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크게 약화되었음
 - 지난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 시키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하여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서민금융을 소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의 서민금융 취급이 컸지만 이들이 민영화되면서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상실하였음
 - 대부분 국내 은행들이 수익성 높은 VIP 또는 PB금융, 주택담보대출 등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도가 떨어진 저소득층은 은행차입에 있어 금리 등 면에서 과거 보다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 하지만 이들 은행들도 최근 새희망홀씨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자회사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서민금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그 밖의 금융기관들의 서민금융 지원도 미약
 - 최근 일부 여신금융기관들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의 경우 그동안 무담보 소비자금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최고금리 인하 추세와 사회의 부정적 시각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 서민금융

- 신용등급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을 취급할 수 있지만 건전성을 유지하고 수익성도 고려하는 금융기관의 영업형태에서 그래도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존재하기 마련
 - 이들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는 미소금융에다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먼저 미소금융은 담보나 신용이 없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함
 - 이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지원사업임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미소금융사업이 출범하였음
 -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앞으로 10년간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의 기부금에다 휴면예금 등을 통해 2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지원대상자는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계층으로 500만~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1~5년임
 - 금리는 연 4.5% 이내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게 책정됨

- 둘째,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을 개선한 상품으로 2010년 11월 출시
 - 외국계와 지방은행을 포함해 1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신용평가회사 기준)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그 대상임
 - 개인 대출한도는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되며, 대출액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금리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햇살론 금리 수준(평균 13%)인 연 11~14% 정도임

- 셋째,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저신용층이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연 10%대 초반의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창업자금 등을 빌릴 수 있는 보증부 대출상품임
- 미소금융이나 희망홀씨대출과 달리, 저신용층·저소득층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임
- 즉,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높아도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함
- 또, 창업자금 지원만을 위한 미소금융과는 달리 기존사업자금·생활자금·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며 금리조건이 연 5% 이상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3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대상자	신용등급7등급이하인 자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연 소득 4천만원 또는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
용도	창업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생계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또는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사업운영자금: 최대 1천만원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사업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최대1천만원
금리	연 4.5%	연 5~14%수준(은행자율)	연 10~13%
대출기간	3~5년(6월~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5년(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창업·사업운영자금 :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긴급 생계자금 : 3~5년 매월 균등분할
취급처	전국 미소금융 지점	국내은행(16개) 영업점	농수협, 신한,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재원	재계 및 금융권 기부금, 휴면예금	은행 이익 중 일부	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및 정부 재정(보증재원)
보증	무보증	신용대출	(서민금융기관 15%, 지역신보 85% 보증)

- 한편 신용등급 9-10등급의 경우 전 금융권 이용이 곤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도와주고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하였음
 - 이곳은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및 변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및 고금리 차환자금 등의 소액금융을 지원함
 -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저신용 고금리 채무자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바뀌드림론) 등을 실시하고 연체채권 매입 채무조정 등을 하고 있음
 - 그리고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시키고 양질의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함
 - 추세에 발 맞추어 이들 제도권 금융기관 자기책임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 아래에서 약화되고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서민금융의 대상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바, 향후 정책의 큰 틀은 서민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세워야 할 것임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신용을 받을 경우가 많음
 - 신용을 생활의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신용경력 관리를 잘 한 사람은 금리, 대출한도 등 금융거래 조건에서 우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므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보호하여 항상 최상의 신용가치를 유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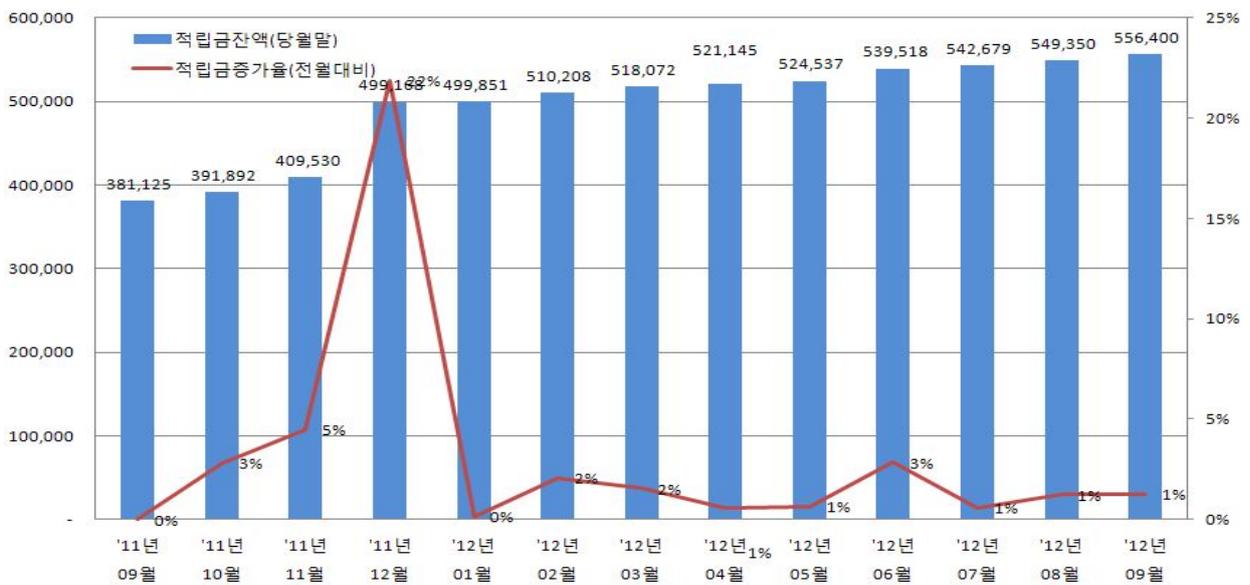
□ 퇴직연금통계 (2012년 9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9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5 조 6,400 억원으로 전분기 ('12.6 월말: 53 조 9,518 억원) 보다 1 조 6,882 억원 (3.0%)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85,689 개소로 전분기(167,460 개소) 대비 10.9% 증가
 - 총 사업장(1,519,850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2.2%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111,218	48,407	19,282	4,938	814	1,030	185,689
(B)전체 사업장수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A/B, %)	8.7	27.1	35.2	45.0	57.1	79.7	12.2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과도한 선택지(選擇肢)로 인한 불행

(실험 1) 한 식료품 매장에서 잼 시식 코너를 열었다. 먼저 6종류의 잼을 제공하고, 1시간 후에는 24종류의 잼을 제공했다. 시식 손님 중에 잼을 구매한 경우를 조사해 보니 6종류의 잼을 제공했을 때에는 30%가 잼을 구매했지만, 24종류의 잼이 진열되었을 경우에는 겨우 3%만이 구매했다.

(실험 2) 초콜릿을 1그룹에게는 6종류, 2그룹에게는 30종류를 주면서, 맛이 어땠는지를 1~7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에게는 초콜릿을 살 수 있는 5달러를 주었다. 실험 결과, 선택할 수 있는 초콜릿 수가 적은 1그룹은 자신이 원하는 초콜릿을 빨리 선택했으며, 또한 높은 만족도 등급을 매겼다. 더욱이 이들 중 절반은 준 돈으로 초콜릿을 구매했다. 반면에 2그룹은 쉽게 고르지도 못하고 사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선택할 종류가 많을수록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위의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선택할 종류가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구매 욕구도 떨어지는 현상을 보았다. 제공되는 가짓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 포화 상태가 되면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선택이 유발되면서 심리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첫째, 아쉬워하게 될 대안이 늘어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임')

둘째, 선택한 대안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충분한 보상 기대')

셋째, 후회할 여지가 더욱 커진다. ('하필 많은 것 중에 이것을 골랐지?')

지금 우리들은 디지털 기기로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선택 대안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오히려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정 후에 후회가 커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선택할 정보와 대안을 적정 수준에서 살펴보아야 더 행복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 나폴레옹 (1769~1821): 프랑스 황제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